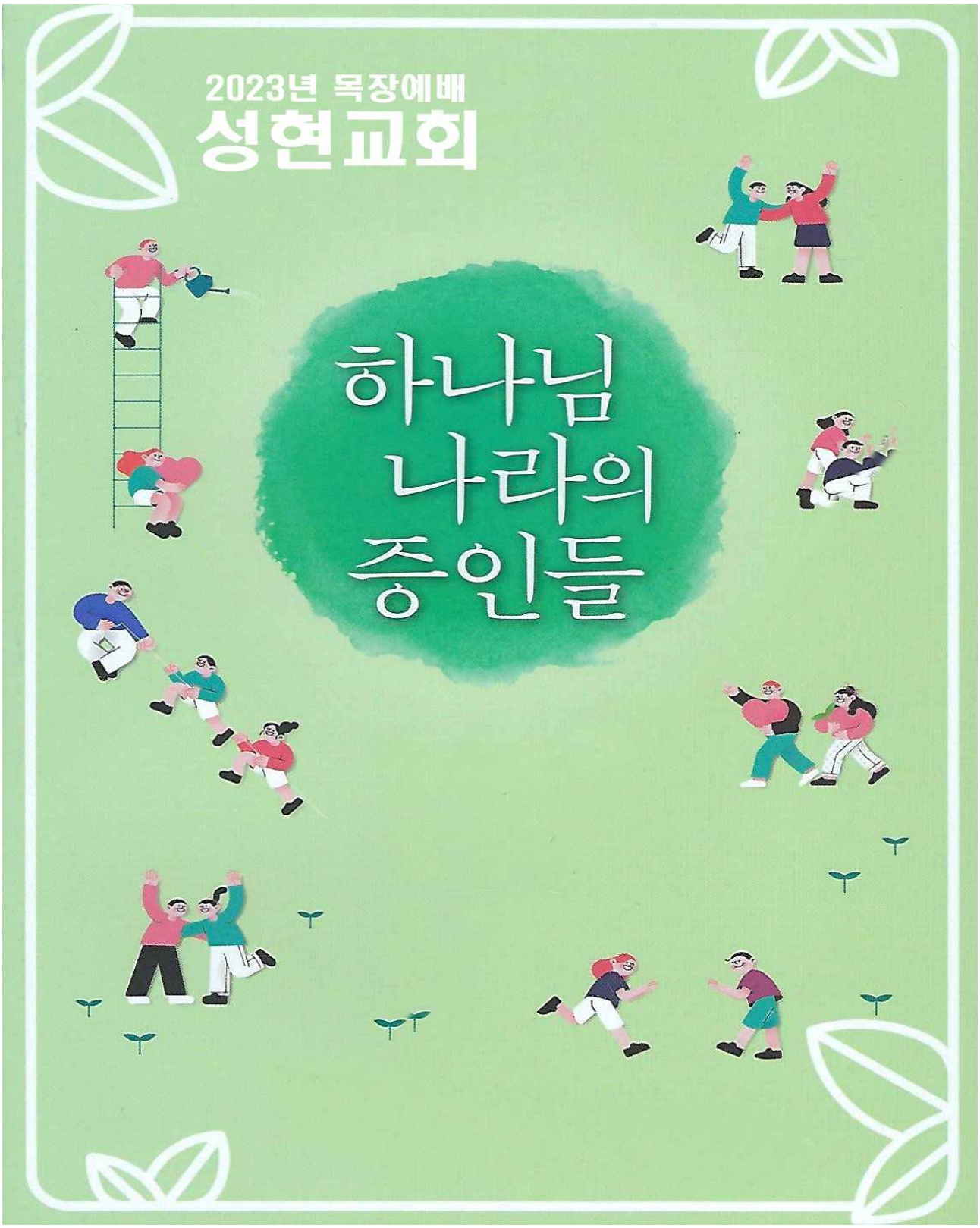
2023년 11월 5일 45주간 제23-45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40과 동역자를 사랑으로 영접하기

성경말씀 요한삼서 1장 5~8절(신약p.396)

암송구절 요한삼서 1장 8절(신약p.396)

찬 송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220(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본 문 이 해

사도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당시 순회 교사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하였습니다. 당시 순회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이오는 이런 사명 자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이들을 극진히 영업하고 환대하였습니다.

말씀 속으로

1. 편지의 수신자는 가이오가 왜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고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3~5절

- 3절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였는데,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보충설명

요한일서, 요한이서가 당시 이단 사상에 위협받던 교회를 향한 교훈적 편지라면, 요한삼서는 그의 영적인 자녀 곧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개인적 편지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3절). 가이오의 행함은 나그네 된 자 곧 복음 전파를 위해 순회하는 교사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요한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2. 가이오의 선행이 왜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요한삼서 1장 7절

-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 나그네 곧 당시 순회 교사들은 주의 이름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수고한 사명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충설명

1세기 당시 순회 교사들(복음 전도자)은 대내외적으로 전혀 주도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세속 학문 및 이단 종교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오직 복음의 순수성만을 드러내고자”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속의 많은 가르침이 그 보상으로서 특별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이런 원리대로 자비량 선교사로 살았습니다(살전2:9).

3.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모범을 들며 오늘 누구에게 어떤 교훈을 합니까?

요한삼서 1장 8절

-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 우리(모든 성도)에게 나그네(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라고 교훈합니다.

보충설명

저자 요한은 가이오의 모범을 들며 우리도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면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이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고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도인 우리도 가이오처럼 복음 전도자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묵상 이야기

고 정필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 같은 성도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늘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제게 차비와 식사비, 때로는 도서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돕는 천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정필도, “전도자에게 대한 주님의 위로”설교 중)

나눔

-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한 목회자들을 잘 섬겨왔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기도

- 가는 사명 자만이 아니라 섬기고 후원하는 사명 자로도 헌신하게 하소서.

적용

- 이 시대의 가이오로 누구를 어떻게 후원하고 섬길지 결단합시다.